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1989년 이후 냉전체제의 와해에 따라 자본주의 권에서 사회주의권으로 확대되고, 1997년 이후 지역경제의 위기에 따라 동북아에서 동남아까지 확대된다. 그것은 일본이 이끄는 ‘기러기떼(flying geese)’에서 중국을 에워싼 ‘대나무밭(bamboo capitalism)’까지 매우 복잡한 구조를 드러낸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위기는 경제통합의 외연적 ‘확대’를 넘어 내포적 ‘심화’를 향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획기적 전환을 요청한다.

지역적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10국(ASEAN)과 동북아 3국(한·중·일)을 포괄하는 ‘ASEAN+3’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기제로서 운용된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제1차(1999-2001)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의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보고서가 채택되고, 그 10주년을 맞아 다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제2차(2011-2012)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의 “20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보고서가 채택된다.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지역협력은 첫 10년 동안 경제금융 부문의 획기적 진전을 이룩한다. 그러나 정치안보 부문은 동아시아의 시간적 위상(역

사문제) 및 공간적위상(영토문제)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지역적 정체성의식의 결합으로 인하여 만성적 부진을 거듭한다. 동아시아의 이러한 국면은 ‘뜨거운 경제, 차가운 정치(經熱政冷)’로 요약된다. 지역통합을 추동하는 경제적 온난전선과 지역균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한랭전선이 끊임없이 엇갈리는 이상기후가 동아시아를 짓누르는 것이다.

이번 특집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동향과 전망”은 경제금융 부문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박변순교수는 지난 10년의 경과를 성찰하고 향후 10년의 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EAVG II 보고서를 해부하고, 이충열교수·이중하 박사는 EAVG I의 각종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뚜렷한 제도적 성과로 평가되는 금융협력 문제를 분석하며, 권윤희박사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장 어려운 구조적 장애로 제기되는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발협력 문제를 검토한다.

미국의 동아회귀와 유럽의 경제위기가 부각되는 세계적 환경이 중일관계의 갈등과 남중국해의 분쟁이 가열되는 지역적 조건과 맞물리는 이 전환적 국면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다. 경제적 통합의 진전이 정치적 협력을 고무하는 ‘방류효과(spillover)’가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통합의 반전을 부추기는 ‘역류효과(spillback)’에 압도되지 않을 ‘뜨거운 경제, 뜨거운 정치(經熱政熱)’는 여전히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역사적 과제이다.